

들어가면서

-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소위 신명기 사관을 여는 서문에 해당한다.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, 이를 앞두고 흥분과 기대로 끝난다. 후세(독자)를 위한 열린 미래다.
-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연설 성격을 띄며, 이런 유의 연설이 여호수아(23 장), 사무엘(삼상 12 장)에도 등장한다. 특히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적 역사관(신명기 26 장; 여호수아 24 장; 사무엘상 12 장).
- 신명기에는 최소한 세 개의 서문이 있다: 모세의 첫 번째 연설(1:1-5); 두 번째 연설(4:44-5:1a); 세 번째 연설(29:2).
 - 예를 들어, “율례와 법도(statutes and ordinances)를 강조한 두 번째 서문(4:44-5:1)은 신명기 5-28 장을 묶었던 것으로 여겨지고, 첫 번째 서문(1:1-4:40)은 신명기 역사서(Deuteronomistic History) 전체에 대한 서문으로 평가된다.
 -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: Motivational Speech (1-11 장); The laws (12-26); Curses and blessings (27-28); Concluding Materials (29-34). 여러 번 편집된 것으로 여김.
- 결론적으로, 신명기는 두 번의 율법 선포를 말한다.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한 것으로 출애굽기 21-23 장(Book of the covenant)과 레위기에 기록되었으며, 다른 하나는 모압 평야에서 행한 연설로 신명기에 기록되었다. 그리고 둘 다 십계명으로 시작한다(출애굽기 20 장; 신명기 5 장).
-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, 새로운 미래/도전에 응하는 형식이다. 과거를 통한 교훈—곤포로기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청사진을 제공한다(4:25-31; 28-31 장).

신명기와 정체성 확립

- 신명기는 앗시리아의 종주조약(Suzerainty treaty)의 영향권에 있으나, 그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. 야훼에 대한 충성과 ‘사랑’의 맹세다(신 6:4-5). “이것은 이론적으로 유일신을 단언하는 것이 아니다. 충성을 단언하는 것이다.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은 야훼께만 바쳐야 한다”(『히브리 성서 개론』, 136-137).
-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(야훼가 우리 하느님이요, 주는 한 분이시다.) => 예수가 그리스도다.

중앙 성소/집권체제로의 변화

- 신명기 집필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(scenario)는 신명기 초기 사상(혹은 초판)은 북왕국에 기인한 것으로, 북왕국 멸망(721 BCE) 후 남왕국에 흘러들어와 히스기야와 개혁에 일조(왕하 18:1-8). 그러나 므낫세왕(687-642 BCE)의 배교와 함께 숨어 있다가 다시 요시아 왕에 이르러 세상에 드러남.
- 작성 연대 (7 세기 BCE). 요시아왕(621 BCE)이 성전에서 ‘율법책’을 발견하고 이에 근거해 성전개혁을 시도한 것에 기인한다(열왕기하 22-23 장). 산당과 지방성소 폐쇄. 예루살렘 성전만 인정. 유월절을 순례절로 제정(왕하 23:21-22).
- 제의 장소: 여러 곳에서 하나로
 - 족장들의 예배처 (벤엘, 브니엘, 브엘세바, 등)
 - 모든 장소(מִקְדָּשׁוֹ; 출 20:24)
 - 오직 한 장소(מִקְדָּשׁ; 신 12:5-14)

출애굽기와 신명기 차이

- 안식일에 대해. 하느님이 제 칠일에 안식(출 20:11); 애굽에서 노예생활(신 5:14-15).
- 안식년 (출 21:2-11 ; 신 15:12-18). 신명기는 보다 관대함. 남중, 여중 차이도, 가족에 대한 제약도 없다.
- 희생제사
 - Clean/Unclean(신 12:15, 20-22; 15:22) => 레위기 Holiness Code. 레 7:19-21; 17:3-9. 레위기에 따르면 그냥 임의로 먹을 수도 아무나 먹을 수도 없다.
 - 유월절이 pilgrim festival 로 지킴(신 16:2. Cf. 출 23:14-17)=> 요시아 왕에 이르러 여호수아(5:10-11) 이후 처음 준수(왕하 23:21-23). Cf. 여호수아—열왕기하는 신명기 사관. 레위기는 신명기 리스트에 신년제(Rosh Hashanah), 속죄일(Yom Kippur)을 첨가.

- 결과적으로, 레위 제사장들이 직장/일터를 잃게 됨. 법적으로는 동일한 권리를 제공한다지만(신 18:6-8), 실질적 차별 대우/기득권 행사(왕하 23:9)
- 과부, 고아, 가난한 자를 구제(신 15:1-11; cf. 출 22:25) => 제 2 십일조(신 14:28; 26:12). 매 3 년마다 레위인, 과부, 고아,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한금.

II. 신명기 사가(Deuteronomistic History)

- 전기 예언서(Former Prophets)에 해당하는 여호수아, 사사기, 사무엘서, 열왕기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모세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, 왕권을 확립하고, 분단과 멸망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다.
-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신학/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다.
- 북왕국/남왕국 왕과 백성들이 신명기의 "율례와 법도(statutes and ordinances)"에 따라 평가됨.
- 그리고 그 핵심에 중앙 성소제가 도입된다 (신 12:5 vs. 출 20:24).
- 일종의 신정론—work of theodicy (θεός + δίκη) God + justice
 - 왜 약속의 땅을 잃고, 성전이 무너지고, 나라가 멸망하여 유배(exile)되어야 하나?
 - 다윗의 집을 지키겠다던 약속은(사무엘하 7 장)?
 - 이런 질문들 가운데 야훼의 행동은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.

교훈. 신학 다시하기

- 신학은 정적인 학문이 아닌 생활, 곧 살아내기(신학하기)다. 고로,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.
 - 신 5:2, "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."
 - 신 29:14-15, "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,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
 - 신명기(17:18, Deuteronomy = δεύτερος + νόμος)는 히브리어 "미쉬네 하토라"(מִשְׁנֵה הַתּוֹרָה, the repetition of the law)를 번역한 것으로 (처음과 다른) 두 번째 법이라기 보다는 영어번역처럼 복사본을 뜻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복사본과 원본(?)에 큰 차이가 있다.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?
- 전통은 사람들에게 취사선택의 대상이지 강제적 힘을 갖지 못한다(아직 성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 때), 혹은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할지라고,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한다(성서로 자리매김한 후).
 - 두 개의 축: Stability and Adaptability
 - ⇒ Stable: 누구나 그 전통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(정체성)
 - ⇒ Adaptable: 그 전통이 새로운 환경, 현실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. 말이 되어야.
 - 전통(정체성)을 잃으면 그 뿌리를 잃는 것이고, 새로운 환경/질문에 적응/답하지 못하면 도태된다.

생각해 보기

1. 우리의 신앙, 교회는 정체성을 갖고 있나? 새로운 환경, 질문에 적응하는가?
2. 신명기 신학이 내게 주는 교훈은?